

권고 및 지침

여성 노인: 연령과 젠더의 교차점에서의 불평등

Advocacy Brief

Older Women: Inequality at the Intersection of Age and Gender

(March, 2022)

유엔경제사회국, 유엔여성기구, 독립전문가 & 미국은퇴자협회

이 권고 및 지침은 연령주의가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교차하는 몇 가지 영역을 탐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노인의 상황, 도전, 기회, 다양성 등의 주제는 여성과 젠더를 다루는 토론 및 노인과 관련된 논의에서조차 자주 간과되고 있습니다. 이 지지 브리핑은 유엔경제사회국(UN DESA), 유엔여성기구(UN-Women),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전문가(UN 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가 미국은퇴자협회(AARP)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으며, 정책 결정에서 고령과 젠더의 관점을 잘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관련 이해 관계자 간의 대화를 촉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이듦에 대한 젠더적 특성은 노인의 삶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나이가 들면 연령주의를 경험하지만,¹ 여성은 나이듦과 그 영향을 남성과는 다르게 경험합니다.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불평등은 노년에 악화하는데, 이러한 불평등은 문화 및 사회적 규범에 깊이 뿌리 박힌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됩니다.² 연령주의와 성차별주의의 조합은 차별과 불평등을 악화시킵니다.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태도는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기보다는 오히려 허약, 의존, 능력 부족, 수동성 등 만년의 삶에 대한 근거 없는 가정과 결합합니다.³ 인종, 민족성,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종교, 국가 및 사회적 출신 배경, 기타 지위와

같은 다른 교차 요소들은 만년에 젠더 불평등과 차별의 위험을 악화시킵니다.

여성 노인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은 대개 인생 과정에서 누적된 불이익의 결과인데, 이것은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에 의해 더욱 악화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 노인은 그들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거부당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노인, 특히 여성 노인에 대한 차별을 불균형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이 팬데믹은 시작된 지 2년 만에 젠더에 따른 부의 격차 해소에 드는 시간을 한 세대 기간 정도 더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한 위치에서 노년을 맞이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⁴

국제 인권 및 정책 프레임워크는 여성 권리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강력한 보장성과 방법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 노인이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다룹니다. 하지만 노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의 부재는 여성 노인을 위한 보호 정책에 공백을 초래합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2016년 아프리카 노인에 관한 아프리카 인권헌장 의정서(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와 2015년 미주노인인권보호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이 여성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노인, 특히 여성 노인에게 미치는 불균형적인 영향은 포괄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단의 부재로 야기되는 해당 연령 그룹에 대한 국제적인 인권 보호의 공백을 조명해 주었습니다.¹ 국제 인권 프레임워크에서의 이러한 공백은 노인, 특히 여성 노인이 정책 결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성이 일생 경험하는 교차 차별은 만년에 누적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상황을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⁵

(The intersecting discriminations that women experience in their lifetimes have a cumulative impact in old age that makes their situation more vulnerable in a crisis, including in the COVID-19 pandemic.⁵)

코로나19 팬데믹은 노인의 권리 보호 보장을 위해 사회 및 경제 정책을 조정할 필요성을 비춰주었지만, 나이듦의 젠더와 관련된 차원은 정책 논의와 의사 결정에서 균일하지 않게 반영되어 왔습니다. 팬데믹 기간 노인과 관련된 몇 가지 이니셔티브는 젠더에 따른 우려, 필요 및 조치를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³ 이러한 문제는 불완전한 데이터와 연관이 있는데, 제한된 데이터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여성 노인이 어떻게 견뎌왔는지에 관한 충분한 상황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노인에게서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혼자 살면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고, 요양시설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습니다. 나이 든 친척, 아동 및 다른 부양가족을 위한 돌봄 제공자로서 여성 노인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노출되며,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더 높은 위험에 직면합니다. 더욱이, 사회적 고립, 재정 및 경제적 불안, 폭력과 학대에 대한 여성 노인의 취약성은 팬데믹 기간 더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또한 남성 노인보다 제한적인 소득, 토지, 재산에로의 접근성 때문에 여성 노인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⁶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 여성 노인의 경제적 상황에 끼친 영향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Economic Situation of Older Women in the United States)

최근 발표된 AARP 설문 조사인 “여성, 일, 그리고 회복으로의 길: 중년 이상의 직장 여성(Women, Work, and the Road to Resilience: Working Women at Mid-Life and Beyond)”은 40세에서 65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 여성 노인의 경제적 안정에 끼친 영향을 조명했습니다. 2020년 초부터 41퍼센트의 여성이 직업 소득을 잃었고, 14퍼센트가 직업을 상실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20%)과 히스패닉 여성(23%)의 실업률은 아시아 여성(14%)과 백인 여성(13%)보다 높았습니다. 조사 당시 실직자 중 거의 70퍼센트가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였기 때문에 재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받은 장기 실업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여성의 경우 신용카드 빚이 4분의 1(23%) 가까이 증가했으며, 따라서 가족(20%)이나 친구(15%)에게서 빌리고, 돈을 벌기 위해 독립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으며(15%), 퇴직금 계좌에서 인출한 것(11%)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직업이 있다 해서 여성이 원하는 만큼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취업한 여성 중 21퍼센트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히스패닉(39%), 아프리카계 미국인(32%), 아시아계(31%) 여성에게서 크게 증가합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급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여성의 거의 4분의 1(23%)이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5퍼센트의 여성이 그들의 재정 상황이 작년에 악화하였고, 대부분이 재정적인 회복은 1년에서 5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기후 변화와 갈등으로 인한 다른 위기와 긴급 상황에서도 나타나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다수의 교차 차별이 심화합니다.⁷ 예를 들어, 긴급 상황에서 여성 노인은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학대와 방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후로 인한 위험에 특히 취약하여 불균형적으로 건강 위험(예, 만성 질병과 대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을 경험하고, 극심한 더위로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⁸ 강제 이주의 경우, 여성 노인은 전통적인 지원 체계와 구조가 없어 더 큰 위험에 처합니다. 더욱이, 디지털 문맹(digital illiteracy)을 포함한 높은 문맹률, 문화적 관행,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젠더와 관련한 기대 등의 결과로 여성 노인은 비상시에 정보와 도움에 접근할 때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성과 마찬가지로 여성 노인이 긴급 상황에서 신체적, 성적 폭력의 높은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에서의 성 및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관한 프로그램은 자주 여성 노인을 배제하는데, 아마도 여성 노인은 이러한 범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연령주의적 가정의 결과이거나 대부분의 조사 모듈은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으로 제한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여성 노인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⁹

자연재해와 인재에 대한 계획과 대응에서 정책 입안자와 관련 활동가는 개입이 여성 노인의 비가시성, 소외, 배제를 악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여성 노인의 구체적인 관점, 우선순위 및 필요를 다루어야 합니다.⁹

많은 여성은 삶의 과정을 통해 경험한 불평등과 차별적 관행의 결과 때문에 만년에는 경제적 불안정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Many women are confronted with economic insecurity in old age as a consequence of inequalities and discriminatory practices experienced throughout the life course).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보다 경제적 불안정에 더 시달립니다. 사회적 보호 분야의 글로벌 데이터는 젠더로 인한 격차를 특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남성의 38.7퍼센트에 비해 근로 연령 여성의 26.3퍼센트만이 연금 제도의 혜택을 보장받습니다.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는 그러한 젠더 격차가 더 크며, 남성의 20.8퍼센트에 비해 여성의 8.1퍼센트만이 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에 대한 접근성에서의 젠더 불평등은 보장 여부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공식 노동시장에 고용되었을 때조차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소득이 낮고, 결과적으로 은퇴 자금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무급 돌봄 제공자로서 일하기 위해 경력 단절자가 될 가능성이 큼니다. 연령과 젠더로 인한 차별이 교차하는 경우에서와 같이 경제적 불평등은 무척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상근직 흑인 여성과 히스패닉계 여성은 히스패닉계가 아닌 백인 남성에게 지불되는 1 미국 달러당 각각 64센트와 57센트씩을 번다고 합니다.¹⁰

비기여형 연금(non-contributory pensions)은 많은 노인 여성에게 혜택을 주었지만, 그 혜택 수준은 많은 경우 불충분합니다.¹¹ 비기여형 연금에 따른 수급 혜택은 여성 노인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주거 등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할 만큼 충분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³

유엔여성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50세에서 59세 사이 여성의 약 3분의 1과 60세 이상의 여성 약 4분의 1이 기본적인 필요(예, 돈, 거주지, 음식, 물, 의료 서비스)를 채우지 못했거나, 그러한 여성에 대해 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50세 이상의 여성 중 거의 3분의 1이

식량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¹²

은퇴 결정 과정에서도 젠더에 관한 차이가 관찰됩니다. 정년퇴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습니다. 저축, 건강 문제, 가족 돌봄의 책임 등은 여성이 퇴직 연령 이전에 은퇴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 일부입니다.¹³ 이른 은퇴는 여성 노인의 경제적 불안정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노인은 안정된 연금과 수입에 대한 확신 없이 비공식 노동시장(informal labor markets)에서 일합니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특히 공식 부문에서 여성 노인이 일할 가능성이 작는데, 이는 (주로 좋지 않은 접근성의 결과로 인한) 낮은 수준의 교육, 젠더 차별적인 법, 젠더에 기반한 전통적인 역할, 약한 재산권, 재정 자원への 접근과 관련한 젠더 차별 또는 결혼 상태에 따른 차별 등의 요인 때문입니다.¹⁴ 임금의 측면에서 여성 노인의 노동은 남성 노인과 기타 다른 인구의 노동보다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데, 이것은 여성 노인의 노동 생산성이 낮다고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의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 노인은 비슷한 일을 하는 남성 노인보다 평균적으로 3분의 1을 적게 벌니다.¹³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노인의 고용률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수준에서 상승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비록 여성 노인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했지만, 1990년 이후 55세 이상 인구의 전체 경제활동참가율(overall labor-force participation rate)은 모든 국가의 소득 집단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유의미하며 일관되게 낮는데, 이것은 여성의 노동 시장 접근에 대한 지속적인 젠더 관련 장벽 때문입니다.¹⁴ 팬데믹 기간 유엔여성기구에서 실시한 신속젠더평가(rapid gender assessments)는 팬데믹이 여성 노인의 수입과 노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60세 이상 여성 10명 중 6명(61%)은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소득 손실은 부분적으로는 유급 노동 시간의 감소로 설명할 수 있는데, 60세 이상 여성 노인의 절반 이상(54%)이 남성(38%)보다 훨씬 큰 유급 노동시간의 감소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¹⁵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1년 말까지 팬데믹 이전의 수치보다 계속해서 낮았습니다. 고령 노동자의 경우 남녀 간 고용 변화 차이도 두드러집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노동인구에서 55세 이상 남성이 45만 9000명 늘었습니다.¹⁶ 반면 55세 이상 여성의 노동인구는 3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¹⁷

여성 노인의 소득 안정성 확보와 평생 겪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악영향 해소는 여성 노인의 웰빙을 보장하기 위한 우선 과제입니다.

여성 노인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비가시성은 여성 노인의 상황을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The invisibility of abuse and violence against older women makes their situation more vulnerable).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인구 6명 중 1명은 공동체 환경에서 학대의 한 형태를 경험했고, 양로원과 장기요양시설 직원 3명 중 2명은 같은 해에 노인을 학대했다고 인정했습니다.¹⁸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척됨에 따라 노인 학대의 비율이 증가하여, 이것이 노인과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건강, 재정 및 사회적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 노인이 겪는 교차 차별과 그들의 높은 기대수명은 여성 노인에 대한 학대와 폭력이 우려사안임을 보여줍니다.

불충분한 데이터의 결과로 여성 노인에 반한 젠더 기반 폭력의 패턴에 대해서는 젊은 여성에 대한 그것보다 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노인은 자주 젠더 기반 폭력과 보호 서비스에 대한 연구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¹⁹ 여성 노인에 대해 신고된 폭력 사건의 다수가

파트너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으나, 여성 노인은 폭력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여성 노인에 대한 폭력 사건은 보건 전문가와 기타 서비스 시스템에 의해 잘 감지되지 않습니다.¹³ 여성 노인에 대한 성폭력은 강간, 강간 피해자, 성적 학대 등에 대한 연령주의적 가정으로 인해 데이터와 연구에서 특히 간과됩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여성 노인도 성폭력의 피해자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섯 개의 장기간 피난 상황에서 49세 이상의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터뷰 대상자 중 11 퍼센트가 이러한 상황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⁹

노인의 재산, 부동산 또는 자산이 불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사용되는 금전적 학대나 착취가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돌봄 서비스를 받거나, 이혼이나 별거했거나, 외롭거나 고립된 여성 노인이 금전적 학대의 더 큰 위험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²⁰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여성 노인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악화시켰습니다. 어떤 여성도 제외되지 않도록 유엔여성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여성에 대한 폭력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보통 조사되는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 대상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50세 이상의 여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첫 번째 데이터 세트였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여성 중 34퍼센트가 팬데믹 시작 이래로 폭력을 경험했거나 그러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60세 이상의 여성 중 63퍼센트는 파트너에 의한 가정폭력이 팬데믹 이후 증가했다고 보며, 55퍼센트는 성적 괴롭힘이 이 기간 악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¹² 이는 노인 등 모든 여성 그룹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세분된 데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젠더에 기반한 폭력과 학대 관련 데이터 수집 도구와 연구는 여성 노인의 경험을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모든 수준에서 여성 노인의 필요를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진화합니다(As women age, their social roles evolve).

여성이 나이 들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과 역할로의 전환은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여성 노인이 사는 사회 문화 및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전환 중 일부를 다룰 것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무급 돌봄 및 가사 노동은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데, 이들 여성은 세계적으로 남성보다 평균 2.5배의 무급 돌봄 및 가사 노동을 합니다.²¹ 노인은 자주 의존적이고 보살핌을 받는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많은 여성 노인이 다른 노인과 가족에게 재정 및 감정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을 제공하는 가운데 여성 노인의 무급 돌봄과 가사 노동은 계속됩니다. 세계적으로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독거할 확률이 높다는 데이터(각각 21%와 10%)는²² 전 연령대에서 여성이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크고, 노년기에는 이를 받을 가능성이 남성보다 작다는 것을 시사합니다.²³ 유엔여성기구의 신속젠더평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60세 이상 여성 노인의 절반 이상(57%)이 무급 돌봄 및 가사 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¹⁵ 60세 이상의 여성 10명 중 거의 4명은 이러한 팬데믹으로 인해 정신 및 정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여성 노인이 손자녀가 생기거나, 나이가 많은 친척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뒷바라지할 때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조부모 역할의 강도가

낮을 때에는 이러한 일이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으나, 지속적이고 높은 강도의 돌봄 역할은 노인의 신체 및 정신적 웰빙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¹³ 많은 상황과 맥락에서 여성 노인이 주요 돌봄 제공자임에도 가족과 공동체의 웰빙에 대한 그들의 기여는 자주 간과되고, 모자 건강 프로그램 등 공공 정책에 적절히 통합되지 않습니다.¹³

여성 노인이 수행하는 무급 돌봄은 양육, 가구 혜택, 상담, 임시 돌봄 등 사회·경제적 혜택과 적절한 지원을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남성이 자신보다 어린 여성과 결혼하는 보편적 패턴, 이혼이나 사별 후 남성이 여성보다 재혼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여성의 기대수명이 높다는 점 등의 이유로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의 **사별 후 독신** 비율이 큼니다.²² 많은 사회가 결혼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결혼이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에 미치는 역할을 고려할 때, 미망인이라는 상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상당한 변화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젠더화된 사회 제도로서의 결혼은 사별 후 독신으로 사는 여성 노인 및 남성 노인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나아가는 길과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방법에 영향을 줍니다. 세계적으로 과부는 일상적으로 낙인(stigmatization)찍히고, 의무적인 정화 의식(mandatory ritual cleansing)과 이동 제한과 같은 매우 차별적인 사회적 관행에 매인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으로 인한 재산과 상속 제도에서의 차별은 여성 노인 등 여성에게 계속해서 불이익을 줍니다. 43개국에서 여성과 남성이 배우자로부터의 재산 상속에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²⁴ 고령의 과부는 토지, 재산, 소득에의 접근에 대한 불평등한 권리, 차별적 관행, 금전적 학대, 앞서 언급된 연금에의 접근에 대한 젠더 격차와 같은 구조적인 젠더 불평등으로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의 차별 종식 외에도, 미망인의 상속, 토지, 사회 보호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이 필요합니다.²⁵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성의 또 다른 변화는 폐경(menopause)인데, 이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으로 폐경이 성(sexuality)과 연관된 정도에 따라 역사적으로 여성의 나이듦에 대한 경험은 생식, 생산성, 젊음, 중요성의 상실과의 부정적인 연관을 통해 프레임 됐습니다.³ 이것은 성과 성폭력이 나이가 들면서 사라진다는 잘못된 가정으로 이어지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경이 남편의 성적 요구로부터 자제할 수 있는 젠더화된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남편으로부터의 긍정적인 지원은 여성 노인이 폐경 후 자신의 성 및 생식 건강을 바라보는 데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¹³ 정책과 연구 수준에서, 생식 기간이 끝나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같은 분야의 통계와 데이터 수집에 영향을 미쳐 여성 노인의 경험에 대한 비가시성을 강화했습니다.

세계 모든 여성 노인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Supporting the well-being of all older women across the world demands more and better data).

팬데믹으로부터의 복구 및 그 이후의 발전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데이터 세분화(data disaggregation) 및 개인 수준의 데이터 수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유엔 독립 전문가와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CEDAW Committee)가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과 젠더에 따라 세분된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의 젠더화된 패턴을 식별하기 어렵습니다.^{2,3} 시기적절하고 질 좋은 젠더-연령 데이터는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여성 노인의 필요와 상황이 정책 결정과 팬데믹에 대한 대응에서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다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고 질 좋은 젠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이것이 정책과 위기복구계획(crisis recovery plans)에 영향을 미칠 때, 국가는 더 효과적으로 재건될 수 있고 여성의 삶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돌봄 정책은 유엔여성기구에서 시행한 신속젠더평가의 세분된 데이터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 데이터는 팬데믹 기간 여성이 더 많은 무급 돌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엔여성기구의 신속젠더평가는 여성을 위해 시행된 알바니아의 농업 보조금 확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속젠더평가의 결과는 세네갈에서 여성·가족·젠더·아동 보호부(Ministry of Women, Family, Gender and Child Protection, MFFGPE)가 주도하는 가정 및 취약계층 회복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Resilience-Building Program for Households and Vulnerable Groups, PAREM)에 보탬이 되었습니다.²⁶

데이터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젠더 및 연령별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연령 코호트는 만년의 다양한 단계에서 갖는 경험의 차이를 반영할 정도로 세분되어야 합니다.³ 코로나19 이전에도 오랫동안 젠더 데이터 시스템은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제한된 자원 때문에 취약한 여성 집단에 대한 데이터가 자주 영향을 받습니다. 양질의 많은 젠더 데이터를 생산 및 사용하는 데 투자하려는 노력을 배가하는 것은 여성 노인이 가시화되고 중요시되는데 필수적입니다.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를 성별, 연령, 기타 주요 특성 등과 관련하여 세분하는 것은 여성 노인의 필요와 그들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¹ A/HRC/48/53. Ageism is defined as “prejudices, stereotypes and discriminatory actions or practices against older persons that are based on their chronological age or on a perception that the person is ‘old’”.

² CEDAW Committee (2010), General recommendation No. 27 on older women and protection of their human rights

³ A/76/157

⁴ World Economic Forum (2021) [Global Gender Gap Report](#)

⁵ A/76/156

⁶ United Nations (2020)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older persons](#)

⁷ Human Rights Watch (2022) [No One Is Spared: Abuses Against Older People in Armed Conflict](#)

⁸ UN Special Rapporteur on toxics and human rights, Marcos A. Orellana 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David R. Boyd UN 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 Claudia Mahler, “ [Amicus curiae brief on Verein Klima Seniorinnen Schweiz et. al. v. Switzerland](#)” (2021) Para. 16.

⁹ A/74/170

¹⁰ National Women’s Law Center-data based on CPS 2021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¹¹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1)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2020-2022](#)

¹² UN Women (2021) [Measuring the shadow pandemic: violence against women during COVID-19](#)

¹³ Supriya Akerkar, “[Gender and Older people](#)”,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cember 2021)

¹⁴ A/75/218

¹⁵ UN Women (2021) [Women and Girls left behind: Glaring gaps in pandemic responses](#)

¹⁶ Seasonally adjusted

¹⁷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urrent Population Survey data. Consulted in January 2022

¹⁸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Fact sheet: Elder Abuse](#)

¹⁹ Perel-Levin, S. (2019) [Abuse, Neglect and Violence against Older Persons](#)

²⁰ UN DESA (2013) [Neglect, Abuse and Violence Against Older Women](#)

²¹ UN DESA (2021)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²² UN DESA (2020) [Measuring household an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ersons around the world](#)

²³ A/73/213

²⁴ UN Women (2022) [Shaping the Law for Women And Girls: Experiences And Lessons From UN Women’s Interventions \(2015-2020\)](#)

²⁵ UN WOMEN (2021) [Explainer: what you should know about widowhood](#)

²⁶ UN Women (2021) [Gender Data Story: Colombia](#) ; [Gender Data Story: Albania](#); [Gender Data Story: Senegal](#)

* 이번 국문 번역 요약본은 유엔경제사회국, 유엔여성기구, 독립전문가 및 미국은퇴자협회가 협력하여 작성한 ‘여성 노인: 연령과 젠더의 교차점에서의 불평등’을 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2022-03/UN-Advocacy-Brief-Older-Women.pdf>).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지역과 국제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권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자료를 요약 및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이은선 담당자(elee@asemgac.org)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